

이슈 리포트

64

2004년 12월 셋째주(12/13 ~ 18)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이념의 시대가 아니고 상식의 시대이다 |
| - 노동자 세상: | 새나라 국회의원이 됩시다 |
| - 통신정책: | 통신업체들 와이브로 사업계획 뭘 담았나? |
| - 정자동 6층에서 | 실패에 대한 교훈을 깨닫기를 바란다. |
| - 만화방 | 시사 만화 |

우리 대다수는 ‘자연사 희구세력’들이다. 북이 ‘불바다’를 운운하고, 미 네오콘(신보수주의)이 ‘북쪽’을 말할 때 그저 하늘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그래서 ‘뉴 라이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될 만한 그냥 ‘덕담’이라도 기대해 보았다. 그런데 되돌아온 것이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라는 말이다. 친구따라 강남도 가는데, 혈맹따라 이라크인들 못가겠는가. 하지만 바로 그 이라크가 민주화되었고, 또 인권이 강물처럼 넘쳐난다는 말을 아직 나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인권이 정치 투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또 뉴 라이트 중 일부는 스스로를 ‘선진화’ 세력이라고 한다. 물론 나도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기를 바란다. 나 못지 않게 현 정부 역시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워 우리를 국민소득 2만달러의 멋진 신세계로 데려다 주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 ‘선진조국 건설’은 저 먼 옛날 5공 때부터 자주 들던 말이다. 그래도 나는 뉴 라이트가 우리의 삶을 고단케 하는 신자유주의와 좀 다른 경제 처방을 내오길 바랐다. 하지만 되돌아온 말은 시장, 개방, FTA, 뉴딜 반대.... 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무엇이 그리 다르기에, 이들은 현 정부를 저리 미워할까.

우리 모두는 낡은 이념 대립과 정쟁을 넘어선, 무언가 새롭고 산뜻한 정치를 원한다. 아마 적잖은 보통사람들이 ‘뉴 라이트’에 시선을 던지는 것도 실은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낡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현정부를 ‘좌파’정부라고 본다. ‘따귀빼고 기름 뺀’ 4대 개혁 입법조차 문제라고 한다. 자유주의를 간판으로 내 건, 한 뉴 라이트 단체는 한나라당을 ‘수구보수’라고 불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역시 그 본질에 있어 자유주의에 다름 아닌 이 4대 개혁법안에는 반대다. 한나라당이 좀 더 ‘화끈하게’ 친미반복하지 않고, 더 격렬하게 대외투쟁하지 않아서 ‘수구’라 부르는 걸까. 이럴 바에야 그냥 한나라당의 ‘건전보수’가 차라리 나올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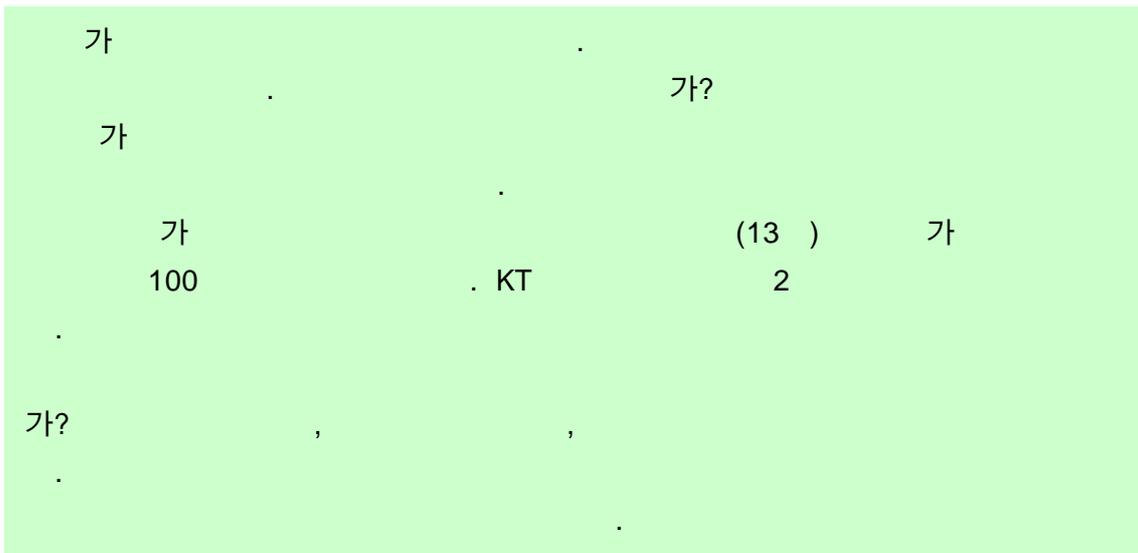
뉴 라이트를 지켜보고, 또 그 일부와 토론하면서 나는 여전히 급조된 ‘빈 집’과 거품을 연상한다. 새로운 깃발을 올리기 전에 자신들의 이념과 지향을 좀 더 가다듬고, 그리고 정책 대안을 좀 더 충실히 갖춘 다음에 나옴이 옳지 않았을까.

- 이념·지향 좀 더 가다듬길 -

최근 미국의 한 네오콘은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LA 발언에 대해 심한 짜증을 내면서 ‘이 집나간 동맹’을 되잡아 오기 위해 ‘한국 정치권에 동조세력을 구축, 양성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혹시 우리의 뉴 라이트가 바로 이 네오콘의 ‘동조세력’이 되면 어쩌나. 그저 걱정이 다.

저 옛날 1980년대에 386 중 일부는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들으며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어야 하나. ‘국민의 소리’가 정답인데도 말이다.

노동자 세상



우리는 지금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가장 축복 받은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문명의 변천사를 몸소 겪고 체험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나 TV는 구경하기 힘든 물건이었다. 우리 집의 첫 TV는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헐값에 넘기고 간 흑백 TV였다. 내가 중학교 때 아주 부잣집이었던 친구네 집은 자가용이 초창기의 현대 '포니'였는데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다. 그때만 비교해봐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지금의 시대는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상전벽해의 시대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대가 반드시 축복만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지는 기술과 문화를 따라잡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장사하는 업종도 기술의 변화에 따라 명멸을 거듭한다.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 '음악을 파는 상점'이다.

애초에 음악을 파는 곳은 LP판(레코드판)과 음악 테이프를 파는 곳이었다. 또 저작권 개념이 없던 그 시절은 손님이 원하는 곡을 테이프에 녹음을 해주기도 했다. 또 휴대용 음악테이프재생기인 '워크맨', '마이마이'등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게 CD로 급속히 대체되기 시작했다. 둥글고 넓적한 CD플레이어가 한동안 또 인기였고 LP판은 급속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LP판을 만드는 공장이 지금 딱 하나 남았는데 곧 그것마저 문을 닫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CD마저도 MP3에 그 자리를 물려줄 태세다.

요즘은 이 '음악을 파는 상점'을 찾기가 무척 힘들다. 예전에 길거리를 걷다보면 '음악을 파는 상점'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음악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아련한 추억에 잠기거나 가슴 벅차 오르는 감동을 삼킨 적도 많았다. 이제 길거리에 음악은 없고 요란한 소음과 광고만이 지배한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사진을 찍고 현상소에 맡긴 사진이 나올 때까지 가슴 두근거리게 기다리던 필름카메라의 호기심과 기다림은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바로 지우는 디지털 카메라의 속도와 효율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잠시 방심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경쟁에서 처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불행한 세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은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아련한 기억은 추억으로 남아야 할 것이며 과거의 유물은 박물관의 전시실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사용하게 한다면 얼마나 그 부작용과 불편이 클 것인가?

흘러가는 강물은 흘러가게 내버려 뒀야 한다

디지털 카메라를 못쓰게 하고 MP3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은 못쓰고 PC통신만 쓰게 한다면?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50년 넘게 묵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는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0년이 넘게 지난 과거의 사건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 기사 하나 보고는 '간첩'이니 '김일성 수령'이니 '북한 노동당'을 뒤져내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조선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회 의사당을 아직도 예전에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 공안부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이철우 의원' 건을 보니 예전에 공안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공안 사건들을 처리했는지 짐작이 된다.

예전에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차떼기'로 받는 바람에 '차떼기당'의 낙인이 찍혀버렸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그 호칭에 발끈한다해도 그 낙인은 지우기 힘들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개혁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이 한나라당이 '반개혁당'으로 역사에 낙인이 찍히고 있는 역사적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그 낙인 또한 좀처럼 지우기 힘들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할 'LP판' 강매 좀 그만 하고 '새나라의 국회의원' 좀 됩시다.

이를 접속포털로 하는 와이브로 서비스도 등장한다. 자회사 하나로드림의 하나브로(하나로+ 와이브로)존도 내놓는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킬러콘텐츠를 제외하면 모두 오픈 플랫폼으로 기존 인터넷의 콘텐츠 경쟁력을 십분 활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또 와이브로를 금융, 유통, 방송 등 여러 유통망과의 협력을 다양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해 여러 형태의 결합서비스 등장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일단 자사가 운영하는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회사 티유미디어의 위성DMB서비스, SK텔레콤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준(JUNE)과 네이트의 콘텐츠 68만개를 내세울 예정이다.

KT, 하나로와 달리 콘텐츠 공급을 SKT가 관리하는 폐쇄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네이트와 준 서비스로 와이브로 맞춤형 포털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쇄형으로만 콘텐츠를 관리할 지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팀장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지 않았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언제부터 쓸 수 있나? = 2006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다. KT는 2006년 4월, SKT와 하나로는 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7년이면 KT는 도청 소재지까지, 하나로는 전국 58개 시까지 제공하고 2008년 이면 84개 시가 포함된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은 1년 늦은 2009년 84개 시에 제공할 계획이지만 2007년과 2008년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액은 KT와 하나가 1조원 안팎이며, SK텔레콤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없나? = 사업자들이 내놓은 투자계획은 당초 전국서비스를 위한 투자예산액인 1조 2000억~1조 5000억원 수준에 못미친다. 한 관계자는 “전국망을 단독 구축하면서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트래픽 예산을 최소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와이브로 투자를 계기로 단말기 장비 제조업의 수요 창출을 기대하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장비제조사의 개발일정도 문제. 삼성전자 단일 밴더로 초기 상용장비가 구축된다면 사업자들이 밝힌 커버리지 확대 투자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와이브로 관련 국제표준이 내년 3월에야 최종 완비될 예정이어서 장비 참여를 선언한 LG전자, 포스데이타 등이 초반부터 장비를 내놓을 지 의문이다.



KT
가 가

노동조합은 2003년 조직개편 당시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런데 뜬금없이 혁신추진단에서 영업력 강화계획이라는 문서를 내려보냈다. 기관장에는 상무보급 임원을 발령하겠다고 한다. 또한 막강한 인사권까지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제야 지사와 망 그리고 영업국의 유기적 관계가 KT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역본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본사직할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자니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은 없고 회사로서도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어쩌면 이정도 실패를 인정했으니 노동조합이 그냥 따라주겠거니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회사는 작은 것은 알았지 큰 교훈을 깨닫지 못한 듯하다. 조직개편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회사의 태도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지적에는 코방귀를 끼면서 나만 옳거니 하는 생각. 그것이 문제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지적이 한낱 무식한 인간들의 아우성쯤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KT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의 지지없이 어떠한 것도 그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용경사장은 지난 9일 창립 23주년 기념사를 통해 “변화의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으며 실패가 없다는 것은 도전을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화합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 즉 믿는다는 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관계이다. 단지 친하다거나 말이 통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단지 믿기 때문에 이해되고 용납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위원장과 합의한 사장의 고용보장선언,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 등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일정부분 양보하고 희생을 감수했다.

조금은 조심스럽고 더디갈지라도 믿음이 바탕이 된 노사관계는 큰 힘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만

화

방

